

# 순창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속도

5개 대학 · 3개 연구기관 참여  
토종발효미생물 활용 우수성 입증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토종 발효미생물을 활용해 한국인의 장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 활용 연구에 속도가 붙고 있다.

8일 순창군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란 체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을 억제해 면역력 증진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총칭한다.

최근 한국인의 서구화된 식습관 및 스트레스는 물론 미세먼지로 인한 외부 환경도 악화되어 피부질환, 변비, 비만 등 질병이 늘고 있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해외에서 수입

된 동물성 유산균에 치중되어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2016년부터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장류를 활용한 토종 식물성 유산균 및 고초균으로 동물성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최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5개의 대학과 3개의 연구기관이 프로바이오틱스 활성을 갖고 있는 고초균을 적용한 정국장이 피부질환개선에, 항비만, 면역증강, 항당뇨, 항염증 등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과학적 우수성을 입증하여 지난 2017년 10월



남원 광치산업단지 (주)세움 김종규 대표가 제16회 전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장수기업 부문에 선정되었다.

## 세움, 전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농기계 제작, 보급 통해 농업 생산성 제고 도움

남원 광치산업단지 (주)세움 김종규 대표가 제16회 전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장수기업 부문에 선정되었다.

(주)세움은 1992년 광치산업단지 입주 제1호 기업으로 창업해 26년째 영농기계 제작, 보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창립초기 이랑쟁기인 OK쟁기를 시작으로 선진화된 생산설비와 엄격한 품질 관리로 쟁기와 논두렁 조성기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브랜드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다.

최근에는 트랙터 부착용 작업기 뿐만 아니라 정동식 고소작업차를 개발해서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꾸준한 매출신장을 꾀하고 있어

### 지역 매 아리

#### 임실경찰, 탈북민 방문 위로 격려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에서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병실에 홀로 입원중인 고령의 탈북민을 방문하여 케케이션을 달아드리고 등 사람 나눔 위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임실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강명섭)와 함께 고향을 떠나 외롭게 병실에서 어버이날을 보내야 하는 장기 입원환자인 고령의 탈북민을 방문하여 가슴에 케케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과 과일병을 전달하는 등 위문행사를 개최해 보는 이들의 호뭇함을 더했다.

탈북민 이모씨는 "오늘따라 북에 두고 온 아들이 그립고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줘 고맙고 살아갈 힘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동안 임실경찰과 보안협력위원회에서는 매년 명절과 어버이날 등 실환의 아픔을 겪고 있는 탈북민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 행사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지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 355명 60% 올라... 이달부터 지급

임실군이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한다.

군은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지키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기리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인상해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보훈수당 지원대상 범위는 지급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참전유공자 또는 유가족, 무공수훈자, 미망인, 전몰군경 및 월남참전전우회 등 지원대상자 355여명이다.

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훈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60%를 인상해 5월부터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보훈처에 새로이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 했다.

국가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회관을 8개 보훈 단체에서 이용함으로써 보훈가족의 화합과 친목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충효의 고장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겠다"며 "나라사랑 정신 및 애국심 함양을 후손들이 배우며 호국보훈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군, 마을주차장 정비사업 '착착'

관촌면 유산마을을 주차장 완공

임실군이 마을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을주차장 정비사업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군은 마을 주차장을 통해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은 물론 마을의 문화행사, 농작업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전망이다.

8일 군에 따르면 관촌면 유산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 주차장 완공, 이를 축하하는 준공식을 가졌다. 유산마을 주차장은 관촌면 일대 주민들을 위해 1,218㎡ 부지에 1억 원을 투입해 올해 4월까지 조성됐다.

유산마을 주민들은 주차장 완공을 기념하며 어버이날 행사도 이 공간에서 가졌다.

주민들이 동네 어르신 위안 잔치를 마을 주차장에서 개최한 것.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어버이날 행사는 유산마을 청년회가 지난 1996년부터 22년간 지속해온 효도행사이다.

오운환 유산이장은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마을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마을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며 "이곳에서 20년 넘게 이어온 어버이날 효 행사를 열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복(53) 청년회장은 "어르신들에게 효를 손수 실천하고 사랑하는 따

##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9일 용남시장 특설무대

시장 이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9일 용남시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코미디언 황기순의 진행과 예선을 거친 12명의 참가자들이 노래솜씨를 뽐낼 예정이며, 김해연, 장민호 등의 복합문화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주차 이외에도 각종 마을 행사와 소통과 문화, 농작업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마을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신념으로 마을 활성화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또한 남원시 3개 전통시장(공설, 용남, 인월시장)에서는 4월~10월 동안 월 1~2회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5월 8일 인월시장 평안야리랑 예술단 공연, 5월 15일 용남시장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행사, 5월 19일 공설시장 난타 및 섹스폰 공연, 5월 28일 인월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있을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의 빠른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위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봄비는 장터, 젊음과 생기가 넘치는 장터로 만들기 위해 시장가요제 및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주민참여 디자인 회의 개최

남원시가 산내면에 추진하는 '2018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주민참여 디자인 회의를 개최했다.

남원시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와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주관하는 간판정비사업인 '2018년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디자인 집중검토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기존 간판정비 사업에서 소외된 도심 외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우수 간판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를 비롯하여 강원 원주시, 충남 예산군, 경남 의령군이 함께 선정되었으며, 산내면 반선지구 일원의 25개 업소의 간판 개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시관계자, 산내면 반선지구 상가대표 등 약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주민은 업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업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지역과 업종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협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차례 더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디자인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산내면이 지리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거리로 새롭게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